

# 곡성 멜론·토란 6차 산업화 본격 시동

### 멜론 300여 농가 180ha서 연 5천400t 생산 흡속의 등근 보약 '토란' 유통망도 대폭 확대

곡성군이 지역의 대표 자원인 멜론과 토란을 활용한 6차 산업화에 본격 나섰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을 받은 곡성멜론(기차타고 멜론마을)은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농산물 브랜드로 꼽힌다. 곡성멜론은 300여 농가 180ha에서 연간 5천400t(생산액 183억원)이 생산되고 있다. 곡성멜론의 오늘날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동안 맛좋은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와 곡성군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멜론의 생육환경에 알맞도록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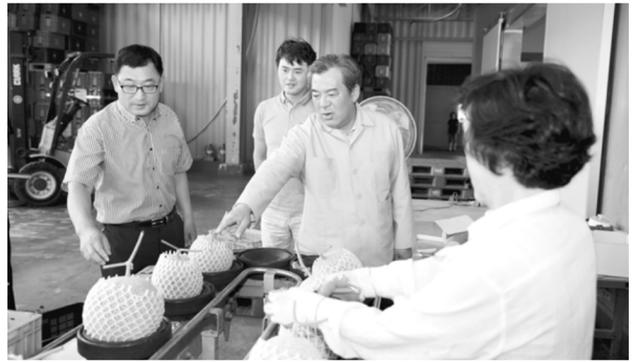
하우스를 내재해형 신규하우스로 교체하고 자동화 시설개선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했다. 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시설하우스 비운작과 토양소독에 의한 흙살리기 사업은 오늘날 전국 최고의 멜론을 생산하게 된 밑거름이 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멜론 생산자단체 스스로의 규정으로 2-3종의 고품질 품종만을 지정해 재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도측정에 의한 판단으로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향이 뛰어난 멜론을 생산하기에 알맞은 곡

성의 기후특성도 한 몫했다.

예년의 곡성멜론 첫 출하 시기는 6월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더 일찍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은 다겹 보온커튼과 난방시설 등 멜론 조기재배 시설개선으로 정식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곡성군의 멜론 조기출하 지원 정책의 효과 앞으로 난방시설개선 사업이 더욱 확대되면 본격 출하기간이 기존의 4개월(6-9월)에서 7개월(5-11월)로 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멜론 재배 농가에서 당초 6월에서 5월로 출하시기를 앞당겨 높은 가격에 출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출하기간이 9월에서 11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연간 멜론 1기작에서 2기작 재배로 확대돼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곡성토란도 상품화에 나섰다.

곡성군은 최초로 토란에 색을 입혀 들깨토란탕, 토란대육개장, 토란완자탕, 토란빵, 토란버블티, 토란쿠키 토란음식을 발굴해 곡성에 가면 쉽게 토란음식을 맛 볼 수 있도록 했다. 곡성의 토란 재배 면적은 100ha로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토란을 주로 명절 음식 등 자가소비용으로 재배하는 것에 비해 곡성에서는 출하용으로 재배한다. 따라서 곡성토란이 수도권에서 유통되는 토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토란 소비는 명절에 한정되어 이전에는 추석이 지나면 토란 가격이 급속히 하락했으나 2016년부터는 추석 이



유근기 곡성군수가 멜론 선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한 후 선별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곡성군 제공

후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그것은 수차례에 걸친 마스크 홍보로 토란이 명절차례상이나 제사 위주 소비에서 벗어나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곡성군은 앞으로 곡성 토란만의 브랜

드와 인지도를 6차 산업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유통 판로망을 확대하고, 토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터널재배사업, 2년차 연장재배방지 시험사업, 흑토란 중구 생산 등을 통해 토란재배 면적을 늘릴 방침이다. /곡성=안영식기자

## 담양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확대

### 읍면 38개리 48마을 691명 혜택

담양 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겪는 산간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효과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담양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2016년 27개 마을 246명을 대상으로 운행하다 지난해는 36개 마을 403명으로 확대 운행중이다.

담양군은 올해부터는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의 거리 기준을 기존 마을회관에서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0.7km에서 0.5km로 완화해 12읍면 48개 마을 691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용 요금은 가까운 승강장까지는 100원, 읍면 소재지나 가까운 전동시장까지는 1천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되며 주 1회 사용할 수 있다. 차액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준다.

담양군 관계자는 "교통 여건 개선과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



군민 교통복지 행복시대 실현에 나가고, 앞으로도 마을주민과 택시운송 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복택시 이용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16년 '담양군 행

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행복택시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남도 주관 100원 택시(행복택시)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담양=김현구기자

## 여수 새해 출산장려정책 강화

### 건강관리사 이용료 90%까지 지원

여수시가 무술년 새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정책 강화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액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90%까지 늘린다.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첫째·둘째까지는 10일, 셋째 이상은 15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 지원 확대는 올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 신청은 시 보건소(061-659-4263)로 하면 된다.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먼저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된다.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된다. 여수시는 또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한다. 선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택배로 발송된다. 신혼·예비·난임 부부가 1회 무료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 구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구례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연납 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89, 2298)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구례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기자

## 광양 새해 달라지는 농업제도 홍보

### 쌀 생산 조정제·청년 창업농 생활안정 자금 지원 등 지역언론, 이·통장 회의서류 등 통한 홍보활동 펼쳐

광양시는 올해 달라지는 농업제도에 대해 많은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 본격시행,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올해 벼 감축 목표를 95ha로 정하고, 논에 벼 이외에 타 작물을 재배시 일반작물의 경우 ha당 340만원, 조사료 재배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가 전년 대비 논작물과 밭작물은 전년 대비 10만원, 과수는 20만원이 인상되며, 기존의 유기 지속 직불금 지급기한인 3년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올해부터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이 출시되며, 농지부담금 감면대상 신설과 농지 사용시 신고제도 변경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으로 농촌 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총 대 출액의 30%범위 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한 일시 인출형 연금이 출시된다. 농지부담금 감면으로는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전액 감면되며,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은 50%가 감면된다.

◇초등 방과 후 돌봄 어린이 과일 간식 무상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

에게 친화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간식이 주1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된다.

◇1천200명 청년농 생활안정자금 지원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40세미만 독립경영 3년(예정자 포함) 이하의 청년농업인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천200명에게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보장범위 확대

다음달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장범위가 기존 53개에서 5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 확대 품목은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버섯 등 4개 품목이며, 특히, 딸은감과 사과는 전국으로 보장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인력지원센터 4개소로 확대 운영

광양시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손부족, 농번기 일시적인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 중인 다압농협 1개소에서 광양, 동부, 진산농협 등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광양=허선식기자

###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